

상회비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20년 전 어느 날 저녁, 나는 두 교회의 당회와 모임 중이었습니다. 총회 전에 이들은 한 가지 사안, 즉 동성애자 장로교인의 안수를 둘러싼 회중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교환은 정중했지만 솔직했고, 열정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한 교회의 당회장이면서 동성애자 장로교인의 안수를 지지했던 목사님이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에는 서로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교단의 도움이 그만큼 필요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당회 서기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때 교회가 처했던 위기에 대해 서기가 언급하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노회와 대회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으로 회중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설교자를 연결해주었습니다. 또한 2년에 걸쳐 교회를 인도할 임시 목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라고 서기는 말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모임에서 교단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목사가 저였습니다. 저는 서기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단 지도자들을 "교회 관료"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교단 지도자들을 우리 교단이 기능하도록 돕는 숙련된 지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말하고 사과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아니었지만, 상회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회, 대회, 총회에 자금을 제공하는 상회비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했던 지원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속력이 다소 약한 타 교단의 동역자들은 그들의 교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상회비에 대한 좋은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대로, 우리가 몸 안의 연결된 지체라는 이미지입니다. —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고린도전서 12:18).

상회비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교회적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운영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로교적 교회 운영을 원할하게 합니다. 장로교 체제는 독립적인 회중 체제나 주교 체제와 상당히 다른 교회 체제입니다. 이는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저는 상회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뒷마당의 경사진 땅을 평평하게 작업했습니다. 미네소타의 겨울의 녹은 눈은 비탈길을 따라 지하실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을 다시 다 손봐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빗물이 흐를 도랑을 만들고 바위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회비 지원 이유에 대해 글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1월에 있을 상회비 인식 주간이 우리 회중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기회인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원에도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단순히 구근을 심고, 야채를 가꾸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완전히 다시 만들면서, 그때에야 우리는 건강한 정원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흙의 배합이나 배수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매년 같은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회중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없다면, 우리 회중에 있는 정원의 식물은 번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상회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회비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말입니다. 당회 서기는 저에게 오래전 저녁의 일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티모시 하트 앤더슨 목사는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상회비 주일 준수

2022년 1월 23일은 상회비 주일로, 우리 교단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주일의 바울 서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12:12-31로, 이 본문은 교회의 모든 부분이 한 몸의 일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되어 있는 교단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상회비에 대한 헌신, 그리고 총회, 대회, 노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목사와 장로들의 노력입니다.

NOVEMBER/DECEMBER 2021 | *Presbyterians Today*